

2014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인천, 마한과 만나다

2014.7.17 Thu
~11.16 Sun

(매주 월요일 휴관)

마한(馬韓)은 기원전 3~2세기경부터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위치한 54개 소국의 연맹체로 후에 그 중 하나의 소국이었던 백제(기원전 18년~660년)에 통합되는 세력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온조왕 27년(9년) 백제가 마한을 멸망시켰으나, 중국의 역사책에는 3세기 후반 마한과 진(晉)과의 외교 관계가 기록되고 있다.

한편 마한과 백제의 영토였던 인천과 인근인 한강 하류에서는 최근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네모난 집터와 흙무지무덤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특히 한강 하류의 흙무지무덤에서는 인천 경기지역에서 드문 세형동검과 부여지방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금 귀걸이가 출토되어 세간의 관심을 얻었다. 이 유적들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백제국과 어떤 관계였을까?



» 인천 연희동유적 출토 유물



» 김포 운양동유적 27호 흙무지무덤 출토 유물

문헌상으로 백제가 국가로서 성립되었던 시기,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서는 영역별로 다양한 물질문화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들 세력의 정체성과 백제국과의 관계설정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반도 남북부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출토 유물들은 타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물을 주고받았던 당시의 사정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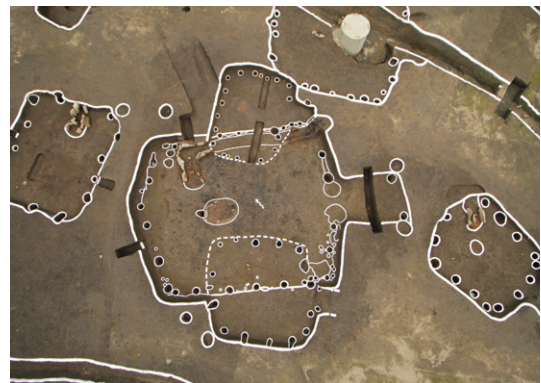
» 인천 운북동유적 출토 유물

네모난 바닥의 집터

인천지역에서는 네모난 바닥을 가진 집이 삼국시대 지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 귀퉁이에 기둥을 세운 집은 삼국시대 서해안에서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해안가에 분포되고 있다. 이는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보이는 출입구를 가진 여(呂)·철(凸)자형·육각형 집과는 다른 주거문화로 구별된다.



» 서해안 네모난 바닥 집터 (인천 운남동유적 집터)



» 출입구를 가진 집터 (남양주 장현리유적 집터)



» 인천 중산동유적 흙무지무덤

인천·경기 서해안지역에서는 흙무지무덤과 움무덤이 이 시대에 등장한다.

무덤 주변의 도랑을 두른 구역 안에 커다란 흙언덕을 조성한 후 목관을 안치한 흙무지무덤은 많은 위세품이 부장된다. 이는 지배자의 무덤으로 생각된다. 한편, 많은 사람들은 널무덤과 움무덤에 묻힌다.

※사진제공

인천 연희동유적(서경문화재연구원), 인천 중산동유적·남양주 장현리유적(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 운북동유적, 김포 운양동유적(한강문화재연구원), 인천 운남동매총(한국고고환경연구소)